<2013.6.23 꼬빌리시 한일연합예배 설교 – 손신일 목사>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에베소서 3장 3-6절>**

**3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4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5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6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내 리브가와의 사이에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을 얻었습니다.

쌍둥이라 해도 대조적인 성격을 가져, 형 에서는 들에서 사냥을 좋아하고, 동생 야곱은 집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야곱은 배고픈 형으로부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계략을 따라 에서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아버지의 축복을 얻어냅니다.

야곱은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과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속상해진 에서는 그 일로 인해 동생을 원망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죽이고 말겠다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을 피해 멀리 하란에 사는 외삼촌에게로 떠납니다.

14년의 세월을 지내며, 거기서 아내와 자식을 얻고, 허다한 가축을 갖게 된 야곱은,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마음먹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 에서와 화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에서는 아직도 동생을 원망하고 있을 것이고, 용서하지 못하겠다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형과의 만남에 대비해 면밀하게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것은 수백 마리의 각양 가축들이었습니다.

이 가축들을 차례대로 먼저 가게 하고, 야곱 자신은 다음 날 에서를 만납니다.

형을 보자마자, 야곱은 일곱 번 땅에 굽혀서 공손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러자, 에서는 달려와서 동생을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울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형과의 충돌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서와 그 일족은 가나안 땅의 동남쪽에 있는 에돔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고, 에서는 에돔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무사히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 후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가 좋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수백년 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의 노예생활을 끝내고, 모세에 이끌려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할 때, 에돔은 이스라엘이 그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멀리 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의 에돔은 이스라엘을 우호적으로 맞이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은, 말하자면 형제와 같은 관계입니다.

하지만, 조상이 형제라 해서 우호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암시하듯, 가까운 관계에 있을수록 복잡하게 얽힌 사정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그 민족 형성의 과정을 보면 형제와 같은 관계에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관계입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에 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깝기 때문에 서로간에 안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근대에 들어오면서, 일찍이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했었다는 역사가 아직 두 나라 사이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의 원한에 대해 야곱이 에서로부터 화해를 얻어냈던 것과 같은 지혜를, 일본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한국 또한 반일교육을 국시(國是)로 할 뿐 아니라, 때마다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할 것입니다.

2년 전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국 사람들의 헌신적인 원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독도 문제가 재연되면서, 지금 양국의 외교관계는 좋지 않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동경 Korean town에서의 hate speech 데모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서 hate speech란 ‚말로 하는 증오의 표현‘을 말합니다.

어떤 우익단체가 데모를 일으켜 일본에 사는 한국인들을 향해 „죽이라“ „내쫓으라“ 등의 폭언을 퍼붓고 있다고 합니다.

극히 일부 사람들의 행동입니다만,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 사회에 대한 불만의 배출구로 외국인이 그 희생양이 되는 모습을 많은 나라에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차별하고 증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며,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꼬빌리시 교회는 주 안에서 여러 민족이 하나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비젼입니다.

그 안에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유럽의 체코에서는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외국인이며 이방인입니다.

동양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몸소 체험하는 일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같은 동양사람끼리 서로 형제와 같은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국에 있었을 때에는 알지 못했던 일을, 외국인이자 이방인으로 살면서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닫혀져 있던 눈이 떠지는 일도 경험할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이웃나라 한일간의 관계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은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에베소서 3장6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서 이방인이란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외국인 혹은 이교도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함께 지체가 되며 같은 소망을 갖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이 하나님의 비밀이자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이라는 존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외국인이나 이방인으로 보는 일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이라는 구별은 없어지지 않는다 해도, 서로가 상대방을 외국인으로 보는 일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듯,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본국은 하늘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라는 지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의 본국이 하늘이라면, 이제 우리 가운데 외국인으로 간주되는 사람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현지인과 외국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본 교회는, 2차대전시 일본의 죄를 짊어지고 진지하게 회개하며, 이웃나라에 깊은 사죄의 뜻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국 교회는, 일본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일본선교를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함께 지체가 되어 같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꼬빌리시 교회 안에서, 멀리 한국과 일본에서 온 여러분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 증오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의 말과 사랑의 말을 나누는 관계로 나아가는데, 우리 꼬빌리시교회의 한일간의 교제가 귀하게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한꺼번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함께 모여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꼬빌리시 교회의 한국과 일본 성도들을 더욱 더 하나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본에서나 한국에서나 이 체코 땅에서나,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막힌 담을 허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